



[산업] 벤츠 'A220' 클래스가 다른 준중형 고급스런 디자인+190마력 08



Life

[바이오] 보령제약 항암 포트폴리오 내실 다진다 L2



“행사취소 1만건·1조3000억 피해 언택트·K콘텐츠로 시장 개척할 것”

인터뷰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소달영 회장

코로나19로 이벤트업계 직격탄 사태 장기화 대비 중장기 전략 내놔 연합체 구성·연계 등 페러다임 구축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한민국 이벤트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는 올 상반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입찰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연달아 취소되어 지금까지 취소 건수는 약 1만여건,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육박한다. 보안 등 기타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은 비공식 행사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국내 1500여 이벤트 업체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벤트업 종사자가 5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감원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지난 6일, 13대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수장이 된 소달영 회장에게 협회운영 중장기 전략을 들어보았다.

소달영 회장은 “최근 언택트 산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순 없어도 프레임을 바꿀 순 있다. 새 기준을 어떻게 짤 것인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2020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정기총회’에서 2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소 회장의 얼굴엔 근심반 기대반이었다. 그는 “세계이벤트프로모션협회·분부를 한국 서울에 두고 싶다.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기준(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고 탄력적인 사업구조를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소달영 회장과 인터뷰 내용을 Q & A로 정리했다.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소달영 회장.

/이민희 기자

—취임 소감을 말해달라.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는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래 이벤트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위협에 취약하고 준비돼 있지 않은 이벤트업계에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잘 안다. 향후 이벤트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현재는 물론 미래가 안전하며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붕괴와 종말에 직면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준엄한 시점에 회장을 맡아 개혁적이고 전략적 사고로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협회운영 및 중장기플랜은.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 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즉, 성장과 발전은 고통을 수반한 길이며,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좋아한다. 미지의 세계(Terra Incognita)로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저는 혁신 산업으로서의 이벤트 산업협회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우선, (사)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에서 (사)한국이벤트산업협회로 변경하여 문화와 이벤트 산업을 융합한 혁신산업을 하겠다. 둘째로, 회원사 및 회원 범위를 전문인에서 이벤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로 확대하겠다. 셋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벤트 산업협회로서 역할을 하겠다. 넷째로 한국형 이벤트 상품 개발과 언컨

택트 시대를 반영한 이벤트를 구축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친목 강화에 노력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현안 및 타개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사업구조를 마련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연합체를 구성하겠다. 예를 들면 관련 업종 연합(비디오물제작사협회, 마이스협회, 체육협회, 공연협회, 관광협회 등) 등이다.”

—회원사 확대 및 이업종 교류 등 향후 행보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달라.

“국내 연관된 사업은 물론, 이종업종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과 연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의 장점을 극대화한 문화기획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아시아 각 나라의 이벤트협회와 도모하여 신 시장을 개척하며, 아시아 이벤트 본부를 한국 서울에 유치할 계획이다.”

—대정부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벤트 산업 발전을 위한 이벤트 산업발전법 국회통과, 이벤트 산업 관련 업종이 정보 교류 및 유통 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이벤트 산업의 진입 장벽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싶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아를자 여행대학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과정’ 수강생 모집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120명 선발 7주간 여행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아를자 계열사 여행대학이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과정’은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 여행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인구 추세에 따라 시니어들의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여행 경험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과정은 7주에 걸친 여행전문가의 실시간 멘토링과 수강생 단체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국내 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여행을 다녀온 후 결과도 공유한다. 강사진으로는 임택 여행작가, 오재철 사진작가, 이종원 여행작가협회 감사, 정상근 여행대학 총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60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동기, 참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모집 포스터. /아를자

여의지 등을 심사해 기수별 30명 등 총 120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18일 오후 6시까지 꿈꾸는 여행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합격자는 22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졸업여행을 포함한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개강일은 서울 7기와 8기 각각 5월 25, 26일, 전주 2기 27, 대전 2기 29일이다.

여행대학은 높은 인기로 힘입어 올해 말까지 지역은 8곳으로, 총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360명으로 늘리는 등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민희 기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생산성본부와 ‘여행업 경쟁력’ 키운다

국가생산성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여행업협회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지난 7일 여행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생산성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행과 생산성본부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 발굴 및 연구·조사,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여행업 컨설팅·자문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여행업계 휴직자·재직자 대상 직군별 직무 전문성 교육, 소규모 여행사 정상화 지원을 위한 계층별 역량 강화 교육, 위기극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왼쪽)이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과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생산성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행업협회

복을 위한 맞춤형 조직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해 인·아웃바운드·국내 여행업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희 기자

PIC광 온라인 이벤트 ‘상상여행 챌린지’ 개최

PIC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미뤄두었던 해외여행을 현실로 이루어주기 위해 5월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그림 여행 챌린지’는 만11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 주제에 맞는 그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가 끝나고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 PIC광에서 즐겁게 노는 상상’이란 주제로 8절지(27.2×39.4cm)사이즈 도화지에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벤트로 ‘PIC 갈래 챌린지’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PIC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PIC 광 사진을 다운받아 이 중 1장을 선택, 이를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합성 시킨 후 #PIC갈래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자동 응모된다.

‘그림 여행 챌린지’ 우승자에게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PIC 광 3박 4일 골드 숙박권 1매, ‘PIC 갈래 챌린지’는 총 10명에게 PIC 한정판 배럴수영모자 (1인당 2개)가 증정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코로나 극복 기여한 ‘관광 유공자’ 추천해 주세요”

문체부-한국관광협회중앙회 29일까지 관광 진흥 유공 후보자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0년 ‘제47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9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협회중앙회는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 등 후보자 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격려함으로써 관광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 대상자 103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 등 23명에게 정부포상을 하고, 80명에게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분야에 따라 문체부, 지역·업종별 관광협회, 관광공사, 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수상자는 다수의 민간위원을 포함하

는 2차례 이상의 전문가 심사위원회와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자격기준 검증, 국민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문체부는 올해 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숨은 공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희 기자